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11.1

담당부서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12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0월 CBSI 11.7p 하락한 58.9 기록

- 9.10대책 본격적 시행 불구 올해 최대 낙폭 기록 -

- 2012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7p 하락한 58.9를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9월에 9.10대책 발표, 계절적 요인, 8월 기저효과¹⁾ 등에 힘입어 70.6을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10월에는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개월만에 다시 하락함.
- 특히 10월 CBSI의 하락 폭 11.7p는 올해 들어 최대 낙폭임.
- 통상 10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9.10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함.
- 이는 9.10대책의 본격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침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7.4p 상승한 66.3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1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10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1월에는 전월인 10월 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쳐 CBSI가 통계적으로 반등하겠으나, 추가적인 건설경기 개선요인이 없는 한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업체의 지수가 전월비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14.8p나 하락한 76.9를 기록함. 10월 대형업체 지수의 하락 폭은 올해 들어 최대 하락 폭이며, 그 결과 대형업체 지수가 6개월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3.8p 하락한 57.7을 기록함. 지난 9월에는 5개월만에 60선을 넘어섰으나, 1개월만에 다시 60선 아래로 하락함. 최근 중견업체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견업체 지수가 저조한 흐름을 지속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17.1p나 하락해 39.3을 기록함. 그 결과 중소기업 지수가 올해 1월의 36.8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부진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3.3, 95.2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0, 77.7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2.5, 68.0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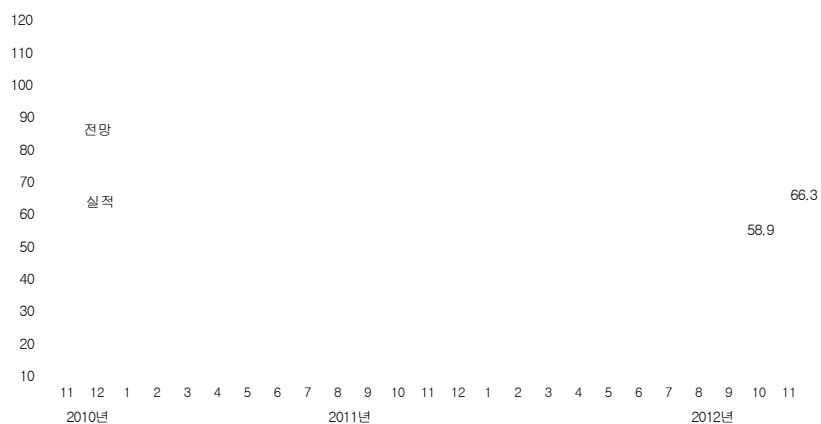
1) 8월 CBSI가 59.0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임.

2012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0월 CBSI 11.7p 하락한 58.9 기록,
9.10대책 본격 시행 불구 올해 최대 낙폭 기록

- 2012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7p 하락한 58.9를 기록함.
- － CBSI는 전월인 9월에 9.10대책 발표, 계절적 요인, 8월 기저효과²⁾ 등에 힘입어 70.6을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10월에는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개월만에 다시 하락함.
- － 특히 10월 CBSI의 하락 폭 11.7p는 올 들어 최대 낙폭임.
- － 통상 10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9.10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함.
- － 이는 9.10대책의 본격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침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업체의 지수가 전월비 하락함.
-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14.8p나 하락한 76.9를 기록함. 10월 대형업체 지수의 하락 폭은 올 들어 최대 하락 폭이며, 그 결과 대형업체 지수가 6개월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함.
-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3.8p 하락한 57.7을 기록함. 지난 9월에는 5개월만에 60선을 넘어섰으나, 1개월만에 다시 60선 아래로 하락함. 최근 중견업체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견업체 지수가 저조한 흐름을 지속함.
-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17.1p나 하락해 39.3을 기록함. 그 결과 중소기업 지수가 올 1월의 36.8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부진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1년 12월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적	전월 전망치	전망
총 합	71.6	62.3	66.7	69.9	66.4	65.4	63.8	65.7	59.0	70.6	58.9	74.7	66.3
규모별	대형	83.3	76.9	92.9	85.7	71.4	92.3	92.9	92.9	80.0	91.7	76.9	84.6
	중견	68.0	69.6	58.3	68.0	72.0	58.3	50.0	56.0	46.2	61.5	57.7	56.0
	중소	61.8	36.8	45.6	53.4	54.1	41.8	45.6	44.8	49.1	56.4	39.3	56.6
지역별	서울	72.5	73.7	81.4	74.7	74.1	74.9	72.1	79.4	63.8	80.5	69.9	73.0
	지방	70.1	47.5	46.5	62.5	54.9	53.6	51.0	45.2	51.6	56.5	43.2	57.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7.4p 상승한 66.3을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1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10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 11월에는 전월인 10월 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쳐 CBSI가 통계적으로 반등하겠으나, 추가적인 건설경기 개선요인이 없는 한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8월 CBSI가 59.0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임.

- 지역별로 10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는 전월 대비 10.6p 하락한 69.9를 지방업체 지수도 전월 대비 13.3p 하락한 43.2를 기록함.
-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8월 63.8을 기록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9월에 전월 대비 16.7p 상승한 80.5를 기록해 다시 80선을 회복하였음. 그러나, 10월 다시 69.9로 70선 아래로 지수가 하락해 한달만에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 지수가 80선에서 60선으로 하락해 서울업체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9월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56.5를 기록했으나, 10월 다시 전월 대비 13.3p 하락한 43.2로 지난 2009년 8월 42.2 이후 2년 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10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1.1p 감소한 61.8 기록

- 10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1p 감소한 61.8을 기록, 물량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물량지수는 지난 8월에는 2년 내 최저치인 52.6을 기록한 이후, 9월에는 이보다 10.2p 증가한 62.9를 기록해 반등하였음.
- － 그러나, 10월 한달만에 다시 1.1p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 2002년부터 2011년 9월에서 10월사이 물량 지수는 6번 하락하고 4번 상승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8p 감소하였음.
- － 즉, 10월 전월 대비 1.1p 감소는 9월과 10월 공사 물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 따른 계절적인 요인으로 판단됨.
- － 그러나, 2002년부터 2011년 평균이 70.7인데 반해 올 10월 물량지수는 61.8에 불과해 물량상황이 예년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 공종별로 토목 물량지수가 58.6로 가장 낮았으며, 주택 물량지수와 비주택 물량 지수가 전월 대비 7.2p 6.6p씩 하락해 각각 63.5, 65.0을 기록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9월 전월 대비 15.3p 상승한 70.7을 기록해 11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10월에는 7.2p 하락한 63.5로 다시 70선 아래로 하락함.
 - 비주택 물량 지수도 지난 9월 전월보다 15.1p 상승한 71.6을 기록했으나, 10월에 전월 대비 6.6p 하락한 65.0을 기록, 한달만에 다시 감소함.
 - 한편,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4.6p 상승한 58.6을 기록함. 비록 전월 대비 상승하였어도 여전히 지수가 60선 미만으로 부진한 상황가운데 있는 것을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대형업체는 전월과 동일한 76.9를 기록하였으나, 중견과 중소기업 물량지수가 각각 2.4p, 0.7p 하락해 지수가 악화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76.9를 기록함.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15.4p씩 하락해 각각 76.9, 84.6을 기록함. 한편, 토목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15.4p 상승한 76.9를 기록함.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63.0을 기록함.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 보다 각각 6.4p 1.2p 상승한 73.1, 69.2를 기록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4.0p 하락한 56.0으로 지수가 더욱 악화됨.
 -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7p하락한 42.9를 기록해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40선에 머물. 토목 물량 지수가 전월보다 1.8p 상승하였으나, 주택과 비주택 물량이 전월보다 각각 13.0p, 5.0p 하락하였음.

< 공사물량 BSI >

구 분		총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1.8	76.9	63.0	42.9	73.4	45.1
	전망	66.5	84.6	61.5	50.9	76.2	52.9
토목	실적	58.6	76.9	56.0	40.0	67.3	46.2
	전망	72.1	92.3	66.7	54.7	80.0	61.3
주택	실적	63.5	76.9	73.1	37.0	69.9	53.9
	전망	72.6	91.7	68.0	55.6	78.5	63.8
비주택	실적	65.0	84.6	69.2	37.3	75.0	51.0
	전망	71.3	90.9	68.0	52.0	76.6	64.2

주 : 실적은 2012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1.8p 증가한 73.4를 기록해 지수가 소폭 개선된데 반해,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5.4p 감소한 45.1을 기록해 지수가 더욱 악화되었음.
- 서울업체의 전월 대비 1.8p 증가한 73.4를 기록해 전월과 비슷한 70선 초반을 기록함.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각각 7.8p, 11.5p 하락한 반면,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6.6p 상승하였음.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5.4p 감소한 45.1로 부진하였음.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1.9p, 0.9p 소폭 상승하였으나, 주택 물량지수가 6.9p 하락하였음.
- 2012년 1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0월 실적치보다 4.7p 상승한 6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통상 11월과 12월에 공사 물량이 상승하는 경향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수가 10월보다 11월에 소폭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비록 지수가 개선되어도 11월 지수가 60선 중반에 불과해 여전히 물량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공종별로 토목 물량지수가 10월보다 13.5p 증가한 72.1로 상대적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다음으로 주택 물량지수가 10월보다 9.1p 증가한 72.6으로 전망됨. 공종별로 지수가 가장 높으나 다른 공종도 모두 70선 초반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주택 물량지수는 10월 대비 6.3p 증가한 71.3으로 전망해, 타 공종에 비해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3.3, 95.2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0, 77.7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2.5, 68.0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72.5	92.3	70.4	51.8	77.8	65.3
		전망	75.7	92.3	73.1	59.3	80.1	69.4
	자금조달	실적	68.0	84.6	66.7	50.0	72.0	62.5
		전망	71.8	84.6	72.0	56.6	74.6	67.4
인력	수급	실적	93.3	100.0	96.2	82.1	99.6	84.2
		전망	93.5	100.0	96.0	83.0	98.5	86.0
	인건비	실적	85.0	100.0	88.5	63.6	94.6	71.3
		전망	85.6	100.0	88.0	66.0	94.3	73.0
자재	수급	실적	95.2	107.7	92.6	83.6	101.3	86.6
		전망	95.3	108.3	92.3	83.3	103.7	83.1
	비용	실적	77.7	100.0	74.1	55.8	88.8	61.7
		전망	80.0	100.0	80.8	55.6	93.7	60.2

주 : 실적은 2012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